

08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간질 간질 에헤헤헤” 물감으로 놀기





“간질 간질 에헤헤헤”

물감 으로 놀기

물감은 색을 가장 잘 표현하는 미술 자료라고 교사는 생각한다.
유아는 물감을 만나 무엇을 할까?
물감이 손, 종이, 붓, 물 등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유아가 물감 놀이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물감을 제공하고 놀이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4세 유아	2013년 4월	물감 놀이 공간

〈교실 전경〉
 3월부터 유아는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놀이를 하거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리는 놀이, 레고 블록으로 비행기 만드는 놀이, 의자를 이어 지하철을 만드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유아가 물감 놀이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다.

물감 놀이 책상에는 다양한 색깔의 물감, 두께가 다른 붓, 팔레트, 다양한 크기의 도화지 등이 비치되어 있다.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시작한다.

첫째 주. 물감으로 놀기



정인이는 붓에 물감을 흠뻑 묻힌 후, 빈 종이 위에 붓을 대고 움직인다. 손으로 붓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붓의 흔적을 보고 그 위에 덧칠을 한다. 정인이는 붓대의 끝을 잡고 돌돌 돌리며 물감을 칠하기도 하고, 손을 빠르게 움직여 붓 칠로 종이를 채우기도 한다.

정인이는 종이에 빈 공간이 없어질 때까지 손을 빠르게 움직여 붓으로 물감을 칠한다. 정인리와 함께 물감을 칠하고 있던 수현이, 재현이, 송민이도 정인이를 따라 종이에 빈 공간이 없어질 때까지 빠르게 물감을 칠한다.

태진이는 물감 놀이 책상 옆 이젤에서 색을 칠한다. 태진이는 붓을 왼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색칠을 한다. 그러다 칠해진 색을 보며 이야기를 짓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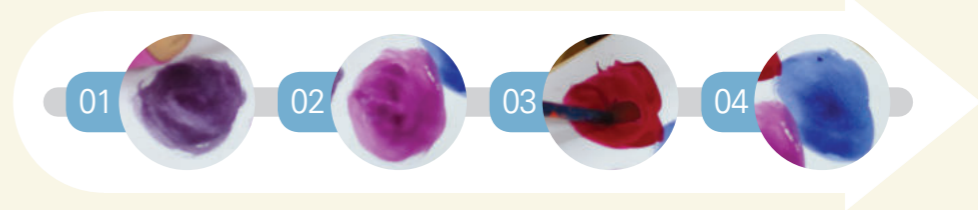
태진: 막 움직이면 색이 칠해져 신나잖아.
 (검게 덧칠해지는 색을 보고)
 숲에 돌맹이!
숲이 밤이 돼서 깜깜해요.



태진이는 색을 보고 이야기를 짓고, 다시 신나게 색을 칠한다. 종이의 여백이 사라질 때까지 붓으로 색을 칠한다. 태진이는 만족해하며 엄마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말한다.

은빈이가 이젤에서 놀이하고 싶다고 한다. 태진이가 초록색을 먼저 칠하고, 다음으로 재현이가 파란색으로 칠하고, 다시 빨간색으로 덧칠한다. 은빈이는 5분 정도 색칠을 한 후 다른 놀이를 하러 간다.

다음 날 은빈이는 팔레트에 빨간색과 파란색 물감을 섞어 도화지에 동그랗게 칠해 본다(01). 빨간색 물감을 더 섞어서 동그랗게 그리고(02), 다시 빨간색과 파란색을 조금씩 섞는다(03).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만 동그랗게 그린다(04).



“(신난 목소리로)
 이거(빨간색)랑 이거(파란색) 섞었어요.
 이거 색깔 물이 4개예요. 색깔 물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보라색이랑 빨간색이랑 4개예요.”

이후로도 정인이는 매일 물감 놀이 책상에서 “마구마구 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종이에 칠하는 것을 반복한다. 정인리와 함께 물감 놀이를 했던 수현, 정원, 송민이는 가끔씩 책상에 들러서 종이에 색칠을 한다.

둘째 주. 물감으로 놀기

인성이가 이젤에서 붓으로 색칠하며 물감이 칠해지는 과정을 본다.



뒤에 있는 교사를 쓰윽 쳐다보며 말한다.

인성: 손으로 해도 돼요?

교사: 응!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인성이는 손등과 손바닥에 팔레트의 물감을 묻힌다. 그리고 종이 위에 손가락, 손등, 손바닥에 묻어 있는 색을 문혀 본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색칠을 한다.



물감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인성이가 다가 물감 묻은 손을 친구의 종이에 찍는다. 친구들은 인성이의 손자국이 난 종지와 인성이 얼굴을 번갈아 본다. 웃음이 가득한 인성이의 얼굴을 보자 친구들도 따라 웃으며 즐거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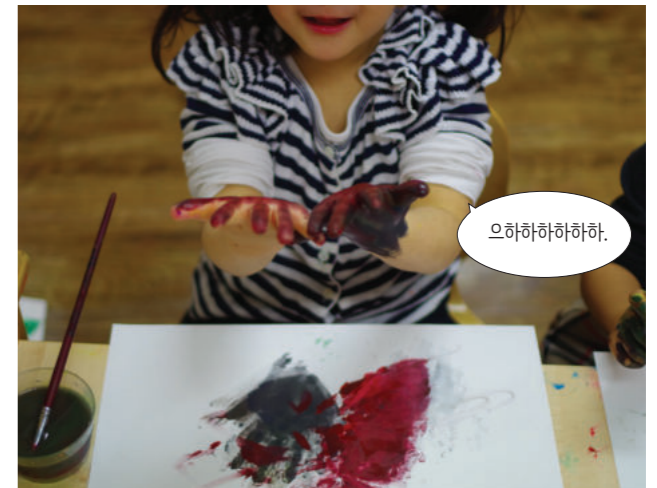


친구들도 인성이처럼 붓에 물감을 묻혀 손바닥에 칠해 본다.



손이 간질간질해. 에헤헤헤.

유아는 붓이 손에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 손바닥에 여러 가지 색을 계속 덧칠한다. 우연히 덧칠하지 않은 부분이 마르자, “풀 갈아. 끈적끈적해.”라고 말한다. 물감 놀이 책상에 있던 모든 유아가 손에 색을 칠하며 함께 놀이한다.



으하하하하하.

다음 날 이젤에서 색칠만 했던 은빈이도 손바닥에 색칠을 한다. 그리고 손을 종이에 대고 비빈 후 손바닥을 뒤집어 바라본다. 이제 손바닥의 색은 떨어져 있다. 은빈이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셋째~넷째 주. 물감으로 놀기

손바닥에 붓으로 색칠하던 유아가 물감을 직접 손에 짜기 시작한다. 태진이는 손바닥에 물감을 짜서 로션을 바르듯이 손 전체에 묻힌다. 정인이는 따라서 해 본다. 한 가지 색을 짜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짜서 손을 비벼 색을 섞어 보기도 한다. 그러다 정인이나 태진이는 손을 맞잡고 손을 이리저리 비빈다. 정인이나 태진이는 이제 새로운 색을 발견한다.



우리 합체하자 합체! 헐크 손이 됐어!

이것을 바라보던 다른 유아도 손에 물감을 짜서 비빈 후 다른 유아의 손과 맞잡아 색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한다.



유아들이 신나게 물감 놀이하는 것을 본 다른 반 교사의 아이디어로 교사가 유아에게 “벽화를 그려보면 어때?”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유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벽화 그리기를 하였다.

붓을 잘 다루게 된 정인이는 “이건 별이라고 그냥 (붓을) 쿡쿡 하는 게 아니야. (붓을) 쿡 하고 돌리는 거야.”라고 말하며 색칠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 준다. 손바닥으로, 붓으로 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한 은민이는 “꽃을 그리려면 이 색(빨간색)이랑, 이 색(흰색), 그리고 이 색(노란색)을 조금만 하면 돼. 그러면 예쁜 색이 나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유아는 물감 놀이의 경험을 살려 벽화를 그려 가고 있었다.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교사는 유아가 원하는 물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감과 여러 자료를 제공하였다. 유아는 주저하지 않고 붓으로 색칠을 시작한다. 정인, 수현, 정원, 송민이는 종이 위에 붓을 마구 움직여 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계속하여 색칠을 하며 종이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며칠 동안 붓을 “마구마구” 움직이며 색칠한다. 색칠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아의 손, 붓, 물감이 만날 때마다 움직임의 강도에 따라 색은 달라지고, 색을 덧칠하며 또 다른 색을 경험하게 된다.

태진이는 이젤 앞에서 한 손에 붓을 들고 몸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신나게’ 온몸으로 색을 칠한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붓, 물감과 교감한다. 그리고 우연히 칠한 색깔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상상하며 짓는다. 은빈이는 팔레트에서만 색을 섞고 만든 색을 하나씩 종이에 칠하며 흔적을 남긴다. 은빈이는 색이 섞여 만들어진 결과에 주목한다.

붓으로 색칠하던 인성이는 손 전체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칠한다. 그리고 옆에서 놀이하던 다른 유아의 종이에 손자국을 남긴다. 다른 유아는 인성이의 행동에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이내 그 행동을 따라 하며 함께 즐거워한다. 유아는 인성이처럼 손바닥에 붓으로 색을 칠한다. 인성이의 놀이가 친구들에게도 놀이 영감을 주었다. 인성이의 놀이는 다른 유아의 공감을 얻으며 함께하는 놀이로 변해 간다. 유아는 붓으로 손바닥에 색칠하며 붓의 감촉을 느끼고, 우연히 색이 칠해지지 않은 손 바닥 부분이 마르면서 만들어 내는 새로운 촉감을 경험한다.

태진이는 또 다른 시도를 한다. 손바닥에 직접 물감을 짜고 로션처럼 비비자 다른 유아도 이를 따라 한다. 물감이 묻은 손을 맞잡아 비비며 색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한다. 유아는 붓 대신 손으로 색칠하고, 손에다 색칠하고, 손을 비벼 색을 만드는 경험을 주도해 간다. 색이 만들어지는 경험과 색을 몸으로 만나는 경험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 놀이는 긴 시간 이어졌다.

이처럼 유아는 물감을 붓으로, 손으로 탐색하고 색칠하는 놀이에 몰입했다. 반복만 하는 듯한 이 놀이는 매번 새로운 색을 만나며 차이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유아는 물감을 몸 전체로, 손바닥과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칠한다. 즉흥적으로 변형되는 놀

이는 다른 유아와 공유하며 즐거움 자체가 된다. 물감으로 색을 만들고, 색을 몸으로 만드는 놀이는 지속된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물감이 유아에게 색을 표현하는 도구 이상의 경험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아는 물감 놀이를 통해 물감을 탐색하고, 물감으로 표현하고, 색을 감상하는 통합적 경험을 하였다.

교사 이야기

물감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교실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책상과 바닥에 물감이 묻으면 어떻게 하지?’, ‘유아의 옷은 어떻게 갈아입힐 수 있을까?’ 등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어요.

막상 놀이를 시작해 보니, 유아는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물감 놀이에 푹 빠져 즐거워했어요. 유아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이해하기 위하여 저도 물감 놀이를 하는 유아와 함께 손에 물감을 짜고 비비며 놀아 보았습니다. 손에 물감을 짜 비벼 보니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들다가 시간이 갈수록 꾸덕해지며 마르는 느낌이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손을 비빌 때마다 달라지는 색이 신기하기도 하고, 반 유아와 손을 잡을 때마다 손에 묻은 색이 변할 때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유아와 함께 신나게 놀이를 하면서 물감 놀이를 하기 전 들었던 많은 고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물감 놀이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놀이가 아니라 내일 또 하고 싶은 놀이가 되었습니다.



교사 지원의 특징

교사는 물감 놀이를 하고 싶다는 유아에게 물감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다.
유아가 마음대로 물감을 섞고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러 크기의 종이 등을 제공하였다.